

다산포럼

송재소



1780년 7월 26일, 조선의 선비 연암(燕巖) 박지원은 청나라 건륭황제(乾隆皇帝)의 70수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에 끼어 연경(燕京) 곧 지금의 북경으로 가고 있었는데 산해관에서 연경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일행은 이날 큰 비를 만났다.

국은 크고 넓을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문명국이었다.

연암과 같은 시기에 중국을 다녀온 초정(楚亭) 박제기는 중국을 ‘문명의 숲(文明之藪)’이라고 했다. 그만큼 중국은 아름

주먹만 한 빗방울

아마도 소나기였을 터인데 연암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갑자기 난데없는 냉수 한 종지가 손등에 덜컥 떨어져 몸이 오싹했으니 사방을 돌아다보아도 물을 뿌리는 사람은 없었다.

연암이 다녀간 지 209년만인 1989년에 기본 중국은 연암과 초정이 본 중국과 너무나 달랐다.

또다시 주먹만 한 물방울이 창대가 쓴 범기저 가장자리에 당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같이 간 부사(副使)의 입을 빌려 “빗방울 크기가 술잔만한지 대국(大國)의 빗방울은 역시 무섭더군요”라고 ‘얼하일기’에 적고 있다.

중국인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성장했다. 초강대국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빗방울이 주먹만 하고 술잔만 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 말은 당시 조선 선비들의 중국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인(有人) 우주선을 쏘아 올릴 만큼 발달한 과학기술 못지않게 문화적으로도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중국인 내세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국과 중국인을 어쭙잡게 보고 으스스하게 시작됐다.

어떤 관광객은 달리를 흔들며 돈 자랑을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마치 우리가 대국이고 중국이 소국인 양 그 위에 군림하려 들었다. 한편 양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7년 8월 24일은 이렇게 국교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15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수고 초기만 해도 기술과 경제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

의 구호는 ‘인문(人文) 올림픽’이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장에모가 연출하는 이 인문 올림픽의 개막식 행사는 ‘성당(盛唐) 시대의 재현’을 주제로 꾸밀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개막식 행사 계획에서 우리는,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를 배출한 화려한 성당시대의 인문정신을 부활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을 읽을 수 있다.

1993년에 내가 만난 북경의 대학생들은 ‘논어’ 한 대목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지금 중국의 소학교(小學校) 학생들에게는 당시(唐詩)를 30수 가장 외우게 한다고 한다. 막강한 경제력에도 인문학으로 무장까지 하게 된다면 중국은 천하무적의 국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일한 자만(自滿)에 빠져 있다가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하청국(下請國)이 될 것이고 문화적으로 중국의 주변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도둑맞은 말해사(渤海史)와 고구려사(高句麗史)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중국인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성장했다. 초강대국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유인(有人) 우주선을 쏘아 올릴 만큼 발달한 과학기술 못지않게 문화적으로도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중국인 내세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국인 내세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설

농촌 현실 외면한 농가등록제 개선해야

올해 시범 도입된 농가등록제에 대한 지역 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방침대로 오는 2010년 농가등록제를 토대로 하는 맞춤형 농정이 실시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농가의 절반 가량이 강제 퇴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대비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전국 9개 읍·면 7천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유형을 전업농, 성장가능 중농, 65세 이상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 4개로 나눠 각 농가별 토지정보와 소득원인 전산화해 정부 보조금의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농가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정부의 지원은 전업농과 중농농에 집중될 게 뻔하다. 고령농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해야 한다. 농가등록제에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령농 퇴출의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는 고령농이 일시에 퇴출되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정부는 퇴출 고령농에 대해 노인연금 및 소득보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재원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고령농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단순히 나이로 퇴출기준을 삼는 것도 문제다. 영농의지나 잠재적 역량 등 주관적 요인을 배제한 채 고작 몇 가지 객관적 맞춤형형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낼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농가등록제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기 지표 호전에도 얼어붙은 체감경기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년 반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3일 오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1.8% 성장해 지난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2·4분기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제조업과 수출이다.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던 제조업은 반도체, 선박, 승용차 등에 힘입어 3.6% 성장률을 보였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따로 늘어서는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수출이 증가하고 증시가 어느 때보다 활황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금융권의 가계신용 잔액은 596조4천47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구당 3천73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표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얼하다는 점이다. 민간소비 성장률이 4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따라 건설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종 지표를 내세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강변해선 안된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종 지표를 내세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강변해선 안된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고용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다시 투자가 이어져 전체 경제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

NGO 칼럼

김상집



2005년과 지난해 광주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실적·과에 편성된 예산은 시가 공개되지 않아 전체 업무추진비의 40%만 분석한 것이다.

살품권 구입 및 지금은 현금지급과 함께 현행 선거법상 업무추진비로 금지된 인사에 현금제공 용도로까지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집행내역으로는 식비가 6억5백만원(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 4억2천만원(26.8%), 물품구입 3억2천만원(20.4%), 살품권 구입 1억5천만원(9.4%), 화환구입 6천9백만원(4.4%) 순이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들이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용돈’처럼 인식돼 왔다.

식사가 연간 1천400회가 넘고, 80%가 외부인사로 시정협조인사와의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집중됐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에는 이번 분석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외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특정

단체장 업무추진비 개인 ‘쌈짓돈’인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지출이 가능하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들이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용돈’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2006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이후(4월26일)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의혹에서 비켜가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선진국의 경우 아예 업무추진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현황상 업무추진비는 없어야 한다.

또 살품권 지급내역으로는 공무원 급여(36.3%), 시정협조인사 감사 선물(63.7%) 등으로 지급했다는 지출결의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현금사용의 경우 상당부분 공적인 용도의 지출보다는 단체장의 치적 홍보와 사전선거 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런 명백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남용으로 사실 확인을 통해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으로 사용됐거나 지출할 수 없는 곳에 지출이 되었다면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들이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용돈’처럼 인식돼 왔다.

책은 곧 우리를 일깨우는 말없는 스승이요 갑갑이임에 틀림없다.

《참여저자 21 대표》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

친구에게 자녀에게... ‘한권의 책’ 선물하자

아무리 바쁘고 생활이 고달픈데라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은 읽는 습관을 들여보자.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독서생활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어느 연구소의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3권으로 월 한권도 채 읽지 않은 편이며, 또 학생들의 학기당 독서량은 초등학교 23.3권, 중학교 9.6권, 고등학교 7.1권으로 초·중·고 모두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단체, 언론기관, 기업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책임감 운동이 지속되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독서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 준다 하면 독서의 생활화는 보다 빨리 정착되리라 본다.

책은 곧 우리를 일깨우는 말없는 스승이요 갑갑이임에 틀림없다.

《참여저자 21 대표》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



사자의 식사와 퐁



‘냠냠’. 사자가 식사중이다. 사자는 각자의 먹이를 확보한 뒤 상대방에게 행여 헛갈려서 등을 돌린 채 앞발을 불들고 게걸스럽게 먹는다.

가니 좋은 먹잇감을 조금 잡다 먹인 뒤 가져가는 게 낫다”고 한 적이 있다. 소고기가 같은 질 좋고 뼈가 없는 먹이를 많이 먹어 야 똥도 냄새가 오래가고 변형도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다.

고양이와 동물들은 어금이가 사람처럼 평평하지 않다. 거의 앞니처럼 날카롭다. 이 때문에 먹이를 잘 씹지 못한 채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최선이다. 치아 구조 때문에 큰 뼈는 부수기 힘들어 못 삼키지만 작은 갈비뼈 정도는 ‘쉽게’ 깨물어 그냥 삼켜버린다.

한 때 호랑이 퐁만으로 부족해서 사자, 표범 퐁까지 섞어 넣은 적도 있다. 누구 퐁인지 분간하기도 어렵지만 모두 고양이와 동물들이니 성분만으로 보면 퐁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주로 닭고기 위주의 동물원 식단에서는 뼈와 고기를 퐁제로 삼킨다. 당연히 대변에는 칼슘성분이 많고 하루만 지나면 하얗게 탈색돼 바스라쳐 버린다.

지금까지 호랑이 퐁을 구하려 동물원을 찾은 이들은 거의 없다. 멧돼지같이 영리한 동물도 호랑이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퐁을 호랑이 것으로 여길까.

예전에 멧돼지 퇴치용으로 호랑이 퐁을 구하려 온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호랑이를 잘 먹어야 똥도 질이 좋고 오래

◇최중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중고차 보험보상 불합리... 원상복구 의무 적용해야

오래된 차라는 이유로 보험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나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가내 차의 중고매매 시세보다 더 많이 나와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매매 시세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얼마 전 운전중 시내에서 커브를 돌던중 신호를 위반한 소형 트럭이 내 차를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됐다.

96년식으로 운행 거리가 11만km밖에 되지 않고 향후 3~4년간 더 탈 생각인데 시세가 7만원밖에 되지 않으니 50만원만 받으라는 것이다.

아반떼 승용차를 현재 11년째 타고 있는데 평소에도 관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잔고장도 없다.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차를 정비공장에 넣었더니 수리비로 120만원 나왔다.

결국 남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50만원을 받고 헤어져야 할 상황이다. 보험회사의 원상복구의 의무는 이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에 대한 보상이 현실과 턱없이 맞지 않다면 자동차 10년 타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상대방 차량이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고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보험회사의 원상복구의 의무는 이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에 대한 보상이 현실과 턱없이 맞지 않다면 자동차 10년 타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박성민·광주시 동구 운림동

無 等 鼓

‘웍스(WAGs)’ 지난 6월초에 출간된 영국 롤린스 영어사전 9판 개정판에 실린 신조어다. 영국의 인기 축구선수들의 사치스러운 부인이나 여자친구를 일컫는 말로 Wives And Girlfriends of footballers의 앞글자를 딴 단어다.

이들 웍스의 여왕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 선수의 애인인 모델 출신의 켈라 윙긴슨이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지난 5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인기 높은 축구선수의 여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켈라 윙긴슨은 8만유로(약 1억원)여치의 쇼핑을 하기도 해 유명세를 더했다.

웍스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때부터다.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그녀들은 명품으로 성장을 한 채 한겨레에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 TV 중계화면에 잡히면서 세계축구팬들의 눈을 붙잡았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애인을 두고도 호나우두는 지난 7월초 인도의 여배우와 밀애를 즐겼다 들었다. 또 지난 27일에는 매춘부를 집으로 불러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더 선’은 대문짝만하게 폭로했다. 인터넷에서 매춘부들은 ‘마치 웍스가 된 기분이었다’고 그날밤의 흥분을 전했다.

그녀들은 거액의 연봉을 받는 남편들의 통장을 चे차고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남편들의 이적도 좌지우지한다. 옮기려는 팀이 고급 소꿉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다.

그녀들은 거액의 연봉을 받는 남편들의 통장을 चे차고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남편들의 이적도 좌지우지한다. 옮기려는 팀이 고급 소꿉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다.

‘웍스(WAGs)’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title '光 州 日 報',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